

해 의 소 식

—Library News Around the World—

ISSN 續報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46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Technical Committee 46—ISO/TC 46)의 실무위원회는 국제표준촉차간행물번호 (ISSN—「도협월보」 5월호 본란 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4차의 회합을 가졌었다. 제1차는 1970년 9월의 오슬로에서 있었으며, 제2차는 '71년 5월 폴 투갈 리스본, 제3차 '71년 11월 서독 베르린, 제4차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있었다. 1,2차 회의 때는 이 ISSN 작업을 UNISIST 작업과 보조를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의 작업이 다소 복잡해진 느낌이였다. 즉 UNISIST 건의사항 제3항 (UNISIST Recommendations No. 3)은 UNISIST 활동의 하나로 불란서 파리에 세워진 국제정기간행물등록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Registration of Periodicals—소장은 Mrs. Rosenbaum)가 이 ISSN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게 센터안에 국제촉차간행물데이터베이스 (International Serial Data Base)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였다. 3차 베르린 회의에서는 ISSN의 기준과 초고가 완성되었으며, 여러가지 미해결로 남아 있던 문제가운데 다음 사항에 관해 우선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1. ISSN은 現刊중이거나 廢刊된 모든 촉차간행물에 붙일 수 있는 개별 번호이다.
2. ISSN은 순전히 숫자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CODEN-code와는 달리 촉차간행물이 간행된 국가, 언어 등에 대한 참조로서의 기호는 ISSN에 포함하지 않는다.
3. ISSN은 8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하고, 0~9까지를 사용한다. 이 번호는 촉차간행물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다 인쇄하며, 8개의 숫자를 하이픈이나 스페이스를 두어 두 그룹으로 나눈다. 예컨대, ISSN 1234—5678과 같다. 제일 마지막 숫자는 ISBN에서와 같이 대조숫자 (check digit)로 사용한다.
4. 파리에 ISSN 국제센터를 두고, 각국에는 국내센터를 두어 ISSN 번호매김의 책임을 맡도록 한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비엔나 회의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ISSN의 Draft Standard가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입수되는대로 이를 다시 소개할 예정이다. —*IFLA News* (40) May 1972—

「목록원칙국제회의

원칙성명 해설판」 간행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편목위원회 (IFLA Cataloguing Committee)는 지난 1961년 불란서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목록원칙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에서 채택된 목록원칙성명 (Statement of Principles)의 최종해설판 (definitive annotated edition)을 1971년 런던에서 간행하였다. Eva Verona氏가 F. G. Kaltwasser, P.R. Lewis, Rt Pierrot氏의 협조를 얻어 저술한 이 해설판은 원칙에 관한 해설의에도 주석과 예 (Commentary and examples)도 수록되어 있는데 편목사서는 누구나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중요한 문헌이다. 119 p.에 값은 £2.5. (\$6.00)이며 주문은 IFLA편목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파리회의는 李鳳順씨가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동회의의 '예비공식보고'는 이재철 역 「목록규칙 (CCR)」의 "붙임"으로 소개된 바 있다. —*IFLA News* (39) Feb. 1972. (40) May 1972—

「International Cataloging」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편목사무국 (IFLA Cataloging Secretariat, C/O The Department of Printed Books, The British Museum, London WCIB 3DG, U.K.)은 금년 봄부터 「*International Cataloging*」이란 정간물을 계간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편목 계간지는 매호마다 편목의 특수문제에 관한 한 두편의 논문과 편목활동에 관한 소식을 실게 될 예정인데, 제1권 제1호 (Vol. 1, no. 1 Jan./March 1972)에는 작년 영국의 Liverpool IFLA 총회 때 J. McRee Elrod氏가 발표한 'The Two-language Collection with the Bilingual Reader'가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호에는 출판동시편목계획 (Catalogia in-Publication-CIP)에 관한 논문과 「싱가포르국립도서관의 多國語목록」에 관한 논문을 수록할 예정으로 있다. 연간예약구독비는 £2.00 (\$5.25)이며, 구독은 위 주소로 하면 된다. ※상기 Elrod氏의 논문은 현재 延世大중앙도서관에서도 그 이용이 가능하다. —*IFLA News* (39) Feb. 1972. (40) May 1972—

IFLA 총회 '73년 불란서 그레노블 '74년 미국 워싱턴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제39차 총회를 1973년 8.25~9.1까지 불란서의 그레노블(Grenoble)에서, 제40차 총회를 1974년 12.7—14까지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금년 총회는 8.26~9.2까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독서'(Reading in a Changing World)란 주제로 열리게 된다. —*IFLA News*(40) May 1972—

FID 총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다큐멘테이션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ocumentation—FID) 제36차 총회는 IFLA 제39차 총회와 같은 장소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법세계적 다큐멘테이션활동과 정보교류에 있어서 소규모 국가 및 공업화도상에 있는 국가의 참여'(Participation of Small and Less Industrialized Countries in World-Wide Documentation Activities and Information Exchange)란 주제로 오는 9.2~9.9까지 개최된다. 금번 FID 총회는 작년 IFLA 총회때의 유네스코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총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31일부터 총회가 끝난 다음인 9월 12일까지 「공업화도상국가에 위한 FID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다.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이세미나의 주제는 '공업화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정보업무의 조직'(Organiz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이다. 이 세미나에 참가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참가희망자는 유네스코로부터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은 FID—IFLA Congress로 하면 된다. —*FID News Bull.* March 1972. *IFLA News* (40) May 1972—

캐나다 오타와대학

2년제 도서관학대학원 개설

캐나다의 오타와대학 도서관학대학원(University of Ottawa Library School)은 금년 가을 학기부터 2년제 도서관학대학원과정으로서 MLS (Master of Library Science)와 MA in L. Sc. (Master of Arts in Library Science) 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MLS는 처음으로 도서관학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이며, MA in L. Sc.는 캐나다에서 그전까지 실시해오던, 대학졸업자로서 1년간의 전문적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질 BLS를 소유한 사람들이 2년차 과정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마련된 과정이다. 그간 영국에서 오래동안 일해오던 P. Harvard-Williams를 원장으로 맞아 실시하게 된 이 2년제 과정은 종래의 1년제 과정으로는 전문적 사서양성이 부적당하다는 北美의 도서관계 여론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6년차 과정 즉 2년제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거의 전부가 고급사서 혹은 선임 사서(Senior librarian)를 위한 과정이었지 전문적 자

격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 과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직교육국이 오타와대학의 2년제 과정으로서의 인가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만약 전문적 사서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그 첫단계 과정으로 2년제 과정이 인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 미국내의 도서관학 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수업연한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Can. Libr. J.* 29(2) March-April 1992—

IFLA 회장 Herman Liebaers 박사

일본에서 「국제도서관의 해」 강연

IFLA 회장으로 있는 벨지움 왕립도서관장 Harman Liebaers 박사는 지난 3월 25일 일본 동경 日本出版會館에서 「국제도서관의 해」 기념강연을 하였다. 「지나간 백스 손들기」이지만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관계되는 제기관은 물론 「세계도서관의 해 한국위원회」에서 그를 초청치 못한 것은 만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圖書雜誌* 66(4) 1972年 4月—

최초의 「닉슨중공방문」에 관한 책

지난 2월에 있었던 닉슨중공방문에 관해 최초로 미국에서 출판된 책은 밴탐출판사(Bantam Books)의 「The President's Trip to China」로서 닉슨대통령이 본국 귀환후 불과 8일만에 출간되었다. 보통 책 한 권을 출판해내려면 1년 이상씩 걸리는 미국의 출판사정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분초를 다투만큼 기민성을 발휘한 출판계획이었다. 따라서 표지는 닉슨대통령이 출발하기 수주일 전에 이미 인쇄가 완료되어 있었고, 사진과 본문 편집은 닉슨대통령과 그 수행원 탑승기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카운트 다운에 들어 갔었다. 160페이지 가운데 96페이지는 현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메꾸었으며, 나머지 64페이지의 본문은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들 가운데 11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값은 \$1.50이다. —*PW*, 201(9) Feb. 28, 1972—

도서관 스카프

미국 조오지아도서관협회(Georgia Library Association)는 협회의 장학기금인 Hubbard Scholarship Fund를 모금하기 위하여 스카프(scarf)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해석적 목적(interpretative objective)도 먼 이 스카프는 흑백색 바탕에 듀이십진분류표를 그려 넣은 것이다. 이 이색적인 스카프의 값은 한장에 \$8이다. —*Am. Libr.*, 2(10) Nov. 1971—

(Comp. by B. M. RHEE)